

요네시로강의 카누

옛 덴진 초등학교 건물 내에 카누 애호가들이 후타쓰이마치 사람들을 위한 카누 클럽을 설립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덴진 공방'이라 부르며 이곳에서 간단한 스티치 앤 글루 공법으로 만드는 카누와 더 복잡한 스트립 카누의 제작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 그룹은 '미치노에키 후타쓰이' 근처에서 작은 카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사 이전부터 통나무 카누를 만들어 왔으나 1950년대에는 북미 스타일의 카누와 카약이 인기를 끌었다. 요네시로강은 예전에 카누가 사용된 적이 없던 곳으로, 1500년대에 아키타의 산에서 벌목된 삼나무 목재의 주요 출발지였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까지는 통나무 뗏목을 요네시로강에서 바다로 보낸 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운반했다. 그러나 현재는 강을 내려가는 것은 여행객뿐이며, 통나무 대신 작은 카누를 탄 여행객이 강을 타고 내려가며 즐기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요네시로강을 타는 것은 아키타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강물은 완만한 언덕과 숲 사이를 흘러, 보호 구역인 시라카미 산지의 숲과 인접한 작은 마을의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때로는 송어가 수면 위로 튀어 올라 수면 근처의 벌레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제비갈매기와 물수리가 수면 가까이로 다가온 물고기를 물에 뛰어들어 잡으려고 머리 위에서 원을 그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